9강 맹자의 혁명론(革命論)

◆ 1교시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 제 한 놈 주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앞에서 이제 훌륭한 정치의 모델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죠. 공자가 얘기하는 君君臣臣, 父父子子. 군주 한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임금의 입장이 되어서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신하의 입장이 되어서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어버이에 대해서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에 대해서는 어버이를 사랑하는, 이상적인 경우인데, 대학의 경우에는 그런 이상적인 군주가 누구였는가. 문왕이었다. 문왕이 이상적인 군주였기 때문에 沒世不忘, 세상에서 사라진 뒤에도 백성들이 문왕을 잊지 못한다. 역시 前王不忘, 앞 시대의 왕을 不忘, 잊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학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꼭 군주가 훌륭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군주라야만 이런 말이 붙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런 것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군주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로서 그것이 인정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예를 들면 조선 시대 수많은 송덕비. 각 고을의 수령들을 찬양하는 송덕비는 죽은 다음 前王이나 沒世한 상태에서 평가된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무슨 永世不忘碑, 이런 것 많잖아요. 永世, 영원히, 영원한 시간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이 영원이 흘러도 不忘, 잊지 못할 지방 군수나 목사의 공덕을 얘기하는 거니까 엉터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무리 무슨 군수나 지방 수령이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고 영세불망이 어디 말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과장된 표현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훌륭한 군주가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군왕이 있다면 그건 백성들의 행복이겠죠. 지금 시대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잊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정치가가 있다면 그것도 그 나라 국민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잊혀지지 않고 잊을 수 없는, 이가 갈려서 잊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고마워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것이어야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맹자의 革命論인데요. 맹자의 혁명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인용하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이제 2번이 있죠? 제 한 놈 주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따지듯이 묻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보죠. 齊宣王이 問曰, 제나라 선왕이 이렇게 물었다. 湯放桀하시고, 湯임금은 桀왕을 쳐부쉈고. 탕임금, 누구를 쳤느냐, 걸왕을 쳐부쉈다, 그리고 武王伐紂, 무왕이 주왕을 쳤다. 탕임금은 그를 쫓아냈고, 무왕은 주왕을 쳤다고 하니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有諸잇가.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孟子對曰, 於傳에 有之하니이다. 전해오는 기록에 有之,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해오는 문헌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曰, 선왕이 묻는 겁니다. 따지는 거죠. 臣弑其君이 可乎잇가. 신하로서 弑其君, 그 군주를. 弑, 이 표현은요, 下殺上입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살해한 거예요. 시해(弑害)라고 그러죠. 현대사회는 그래서 신분사회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인도 같은 데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해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죠. 신분사회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뭐 자식이 어버이를 살해한 그런 경우는 종종 쓰긴 하는데, 어쨌든 신분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시해는 현대사회에서는 딱 맡는 사례가 없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신하로서

www.artnstudy.com

군주를 죽이는 것이 시해입니다. 또 뭐, 자식으로서 어버이를 죽이는 것도 시해라고 쓰고요. 근데 이제 저 탕임금이나 무왕은 나중에 임금이 되었지만 어쨌든 각각 걸왕과 주왕의 신하였어요. 신하였는데 그 군주를 시해한 것이 옳습니까? 可乎, 여기서 이제 버벅거리기 쉽잖아요, 사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왔을 때. 탕임금, 무왕 다 당신이 성인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배신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대답이 궁금하잖아요. 저도 이제 아까 삼국지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제 애가 중학생인데 최근에 삼국지를 읽었더라구요. 너 삼국지 주인공 중에 누가 좋으냐 물었더니 유비가 제일 좋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 고지식한 녀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동탁이나 여포가 좋은데? 배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비도 배신자다. 그러면서 유비가 배신한 내력을 쭉 얘기해 줬더니, 막 버벅거리더라구요. 버벅거리기 쉽습니다. 당신이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탕임금이나 무왕, 알고보면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한 것 아니냐. 이게 그 당시의 절대적 가치인데.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해야 된다, 이게 절대적 가치인데. 이게 절대적 가치라고 주장한 철학자가 없다 뿐이지, 당시 권력자들에 의해서 이게 절대적 가치이죠. 이게 충성할 사람 뽑으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 뽑는 것. 그랬는데 그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어떻게 나가냐면, 공자의 名分論을 응용한 겁니다. 이게요. 그렇게 얘기하죠. 賊仁者를 謂之賊이요, 仁을 해친 자를, 賊 - 해친다, 도둑질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賊義者를 謂之殘이요, 의를 해친 자. 그러니까 仁를 해친자를 적(賊)이라고 일컫고 義를 해친 자를 잔(殘)이라고 일컫는다. 잔인한 자, 이렇게 일컫는다. 계속 보죠. 그리고 殘賊之人을 謂之一夫니. 一夫, 이건 필부와 같은 뜻이죠. 일부(一夫), 필부(匹夫) . 서경에는 독부(獨夫)라고 되어있습니다, 獨夫. 한 명의 남자, 뭐 이런 뜻입니다. 독부. 일부라고 하니, 聞誅一夫紂矣요 未聞弑君也니이다. 이건 한 번 써 보죠. 이런 이야기는 들었어도, 未聞, 아직 이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聞誅一夫紂, 誅 - 죽인다, 베다 이런 뜻이죠. 一夫紂, 한 명의 남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未聞弑君也.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했다는 얘기는 未聞,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군주 아니니까, 그니까 不君이니까. 君不君,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군주답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잔인한 사람이라면, 그거는 군주가 아니다. 이렇게 되니까 맹자가 공자의 명분론을 응용한 것이죠. 그니까 공자의 명분론이나 정명론이 반드시 맹자의 혁명론과 저촉되는 것만은 아닌 겁니다. 혁명을 정당화시켜주는 근거도 사실은 그런 정명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군주가 군주답냐 아니냐는 비판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단 선왕이 물은 것은 탕임금과 무왕이 교체를 주도하는 세력이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정당하냐는 것을 묻는데, 정당하냐는 것을 묻는 방식이 그들이 교체를 주도했다는 그 사실을 두고 신하로서 군주를 시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교체의 정당성 여부는,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걸왕과 주왕이 과연 군주다웠느냐 군주답지 못했느냐를 기준으로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맹자가 사실을 목격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한 명의 남자, 제 한 놈 주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얘기는 들었어도 군주를 죽였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이러면서 그 자체를 정당한 것으로서 얘기합니다. 그 혁명론의 바닥에 공자가 주장한 정명론의 논리가 깔려있는 거죠. 임금이 임금답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질문 나온 것처럼 그럼 교체 주도 세력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거죠. 그걸 한 번 보죠. 2-1번에 보면 이제 이게 과연 혁명이냐 찬탈인가, 이게 주제가 될 텐데. 찬탈이라고 하는게 시해죠, 弑

www.artnstudy.com

害. 임금 자리를 뺏기 위해서 임금을 죽인 거지, 천하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게 찬탈인거죠.

▲ 혁명인가 찬탈인가

한 번 보죠. 일단 朱子를 보죠. 절반의 인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書曰, 서경이 이렇게 발했다. 獨夫紂, 주왕을 가지고 서경에서는 독부라 그랬다. 한 놈, 한 명의 외로운 지아비, 이런 뜻으로 보았다. 獨夫紂라고 했으니, 한 명의 夫라고 했으니, 蓋四海歸之 則爲天子요. 四海는 사해의 백성들 입니다. 사해의 만백성들이 歸之, 그 사람에게 귀곡하면 爲天子, 천자가 되는 것이고, 곧 천자이고. 天下叛之, 천하의 모든 백성들이 반지, 그를 떠나면, 그에게 반역하면 則爲獨夫라, 독부다. 이거는 이제 사해나 천하라고 하는 것은 민의니까, 민심의 향배가 그가 군주인가 아니면 독부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맹자의 기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민심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물리적으로도 민의 영향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민이라고 하는 게 정치의 향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정도가 못 되었는데, 공자나 맹자가 민의 가치를 끌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사해나 천하 이런 것들은 四海之民 天下之民입니다. 사해의 백성들, 또 천하의 백성들이 그를 등지면 독부다. 한 명의 지아비가 되는 거다. 그러니 所以 深警齊王하여, 제나라 왕을 深警, 깊이 경계해서. 垂戒後世也라, 후세에 후계, 경계를 드리우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혁명 자체를 정당시했기 보다는 왕을 경계시키기 위해서 맹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절반 정도 인정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정확하게 본 것이기도 합니다. 맹자가 그렇다고 해서 혁명의 정당성을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프랑스 대혁명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혁명과 곧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확실적 오보죠. 그건 아니구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딴죽이 좀 심하게 들어온 게 王勉이예요. 왕명 역시 송나라 학자인데, 이렇게 얘기 합니다. '왕명의 딴죽'이라고 제가 붙여놨죠. 왕명의 딴죽은 한 마디로 죄짓지 않은 자만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죠. 斯言也,. 이 말은, 그러니까 맹자의 이 말은, 한 명의 지아비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는 惟在下者有湯武之仁 而在上者有桀紂之暴則可, 오직 이런 경우에만 재하자, 아래에 있는 사람, 신하가 湯武之仁. 탕임금이나 무왕같은 인을 이미 가지고 있고, 탕임금이나 무왕처럼 仁으로 이미 공인받은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괜찮지만. 不然, 그렇지 않다면. 是未免於簒弑之罪也, 이것은 찬탈이나 시해. 찬탈은 이제 임금의 자리를 빼앗는거고 弑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찬탈, 시의 죄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죄짓지 않은 자를 돌로 쳐라, 그런 논리가 되는데, 돌로 치는 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부도덕함을 비난한다든지, 어떤 개인의 비난 이런 것보다 군주의 과실을 지적할 때 과실을 전혀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라거나 또 인이 어진 군주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비판을 해야 된다면 아마 모두 입 다물어야 될지 모릅니다. 한때 왜 그런 경우 있었죠. 국회의원끼리 비판을 하고 그럴 때 뒤에서 너는 잘했니, 너는 깨끗하니,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너도 더럽잖아, 이러는데 더러운 자도 다른 사람의 더러운 행위를 비난할 수 있어야 정상적인거죠. 만약에 깨끗한 사람만이 더러운 사람을 비판할 수 있다면 다 입 다물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명이 사실은 딴죽을 걸었거든요. 탕임금이나 무왕이나 되어야 폭군의 잘못됨을 주벌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은

www.artnstudy.com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일단 현재에 있는 군주가 폭군이라면, 그 다음에 오는 군주가 또 다른 폭군에 지나지 않는다 해도 바꾸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군주가 또 폭군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고 현재의 군주가 폭군인 것이 분명하다면 선택은 무조건 바꾸는 거죠. 그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죠. 다른 쪽으로 진출할 필요가 있겠죠.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어쨌든 현재의 잘못을 논의할 때 그 사람의 도덕적인 자격이라든지 정치적인 자격을 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니까 왕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딴죽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서 장자 도척(盜跖)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한 번 보죠. 장자 도척편과 성현영(成玄英)의 풀이, 장자 도척편은 장자 자편에 나오는 편 이름이고, 盜跖, 도둑입니다, 도척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마치 성이 도이고 이름이 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큰 상관은 없고요. 장자 도척편에 보면, 도척에서는 유하계(柳下季), 맹자에서는 유하혜(柳下惠)로 나와요. 유하계의 季는 이름이고 惠는 시호라는데, 季, 惠 같아서 같은 것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유하계 또는 유하혜로 같이 불린거죠. 원래 발음상 같았는데 한쪽은 계로 기록되고 한쪽은 혜로 기록됐다고 저는 보는데요,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는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柳下라고 사람들이 불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하계의 동생이 도척(盜跖)이예요. 그리고 공자하고 유하계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도척을 만나러 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쫓겨난 이야기가 장자 도척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척이 공자를 질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내용이여요. 탕무(湯武)는 정벌과 찬시(簒弑)의 대표자다. 찬탈, 시해한 자들이지 이게 무슨 혁명 그런 것 아니다, 이런 식이예요. 그 내용을 보죠. 湯放其主하고 탕임금은 그 군주를, 자기 군주를 放, 쫓아냈고 武王殺紂라. 무왕 또한 자기 군주였던 주왕을 살해했다. 自是以後로, 이 이후로부터 以强陵弱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능멸하고. 以衆暴寡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적은 수의 사람들을 暴, 폭력적으로 대하고(원래는 포로 읽어야 되는데 요즘은 폭자로 다 읽으니까 저도 그냥 폭이라고 읽습니다). 湯武以來 皆亂人之徒也, 탕왕 무왕 이래로 모두 난인들의 무리이다. 탕왕, 무왕 다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이제 도척(盜跖)편에 나오는데, 그걸 두고 성현영이라고 성현영은, 장자의 주석가입니다. 당나라 때 도인이예요. 도인주석가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征伐簒弑 湯武最甚이라, 정벌과 다른 나라를 치고 공격하고 또 찬탈, 시해한 것으로는 湯武가 最甚, 가장 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혁명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정권, 정복 또는 폭력적 정치의 전형,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참고로 정약용의 湯論을 한 번 보죠. 탕론에 보면 이제 유가 학자들이, 이제 이건 좀 기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학자들이 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약용이 이제 그걸 부정하는거구요. 정약용의 탕론, 탕왕론입니다, 탕왕론. 蟪蛄不知春秋라고 장자에 나오는 대목이 인용되어 있어요. 蟪蛄은 이제 매미, 신식 매미나 쓰르라미같은. 蟪는 쓰르라미고, 매미예요. 매미는 不知春秋, 한철 사는 매미는 春秋, 일 년의 길이를 굳이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인데요. 기니까 한 번 쭉

www.artnstudy.com

읽어보겠습니다. 탕왕이 그를 추방한 것이 옳은 것인가. 탕임금이 그를 추방한 것이 옳으냐. 신하가 임금을 친 것이 옳은 일인가. 그 제나라 선왕의 질문과 똑같죠. 스스로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 도를 답습한 것이고, 탕임금이 처음으로 열어놓은 일이 아니다. 옛날에 탕임금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신농씨(神農氏) 후손들이 그 후손들의 덕이 쇠진하여 공벌하니까, 공격하고 치고 하니까, 헌원씨(軒轅氏)가, 황제예요. 헌원씨(軒轅氏)가 무력을 동원하여 조향(朝享)하지 않는 자를 정벌하니 제후들이 모두 귀의하여 왔다. 그리하여 염제(炎帝 신농씨의 별칭임)와 판천(阪泉)의 들판에서 전쟁을 벌였고 세 번 싸워 승리를 거둠으로써 드디어 신농씨(神農氏)를 대신하여 헌원씨가 황제로 군림하였다. 이상은 사기(史記)의 오제본기(五帝本紀)에 보인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신하로서 임금을 친 것은 황제(黃帝 헌원씨의 별칭임)가 창시한 일이다. 따라서 신하로서 임금을 친 것을 죄주려면 헌원씨가 수악(首惡)이 되니, 헌원씨(軒轅氏)로서는 탕왕에게는 따질 필요가 없다. 이건 뭐 정당한 논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약용의 이야기입니다만. 탕왕이 한 것이 정당하다면 칭송할 것이고, 탕왕이 한 것이 부당하다면 비판을 해야지, 먼저 한 게 신농씨가 있느냐 없느냐고 하는 건 다른 문제죠. 다만 정약용의 대답은 그 효시가 탕왕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뭐 신농시니 이런건 실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게 아니라 전설상의, 신농씨는 소머리에 사람 몸뚱아리를 한 사람이여요. 사람이 아니죠. 황제는 얼굴이 네 개였다고 합니다. 사방을 한꺼번에 다 새길려구요. 그냥 고개를 돌려보면 되지 뭣하러 얼굴이 네 개 있는지 말이죠. 농담이구요. 그게 사기의 오제본기가 벌써 한나라의 서경이나 이런 문헌보다 훨씬 뒤에 성립된 한나라 때 문헌이고, 사마천이 중국의 통치 영역을 좀 더 광범위한, 그 뭐랄까요, 광범위한 지역의 문화적 동일성을 확보하려고 엮은 거니까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다산 정약용의 말에 따라 다산에게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정보는, 다산 이후 현대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내용들이니까 뭐 다산에게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그 다음을 봅니다. 대저 천자의 지위는 어떻게 해서 소유한 것인가. 대저는 뭐 옛날 어투인데,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되어 있죠. 원래는 민족문화추진회라고 했어요. 오래된 번역이기 때문에 옛날 어투가 많이 나와요. 불만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직 뭐 새로운 번역이 안 나왔으니까 일단 이걸로 봅니다. 천자의 지위는 어떻게 해서 소유한 것인가. 하늘에서 떨어져 천자가 된 것인가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 천자가 된 것인가. 생겨진 근원을 더듬어 보면 이러하다. 5가(家)가 1린(隣)이고 5가에서 장(長)으로 추대한 사람이 인장(隣長)이 된다. 5린(隣)이 1리(里)이고 5린에서 장으로 추대된 사람이 이장(里長)이 된다. 5비(鄙)가 1현(縣)이고 5비에서 장으로 추대된 사람이 현장(縣長)이 된다. 또 여러 현장들이 다같이 추대한 사람이 제후(諸侯)가 되는 것이요, 제후들이 다같이 추대한 사람이 천자가 되는 것이고 보면 천자는 여러 사람의 추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누구 맘대로 이렇다고 할까요? 다산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대저 여러 사람이 추대해서 만들어진 것은 또한 여러 사람이 추대하지 않으면 물러나야하는 것이다. 때문에 5가가 화협하지 못하게 되면, 화합하지 못하면 5가가 의논하여 인장을 개정(改定)할 수 있고 또 5린이 화협하지 못하면 25가가 의논하여 이장을 개정할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여섯 번째 아래줄을 보면 주(朱)를 당후(唐侯)라 했고 상균(商均)을 우후(虞侯)라 했고 기자(杞子)를 하후(夏侯)라 했고 송공(宋公)을 은후(殷侯)라 했다. 완전히 끊어버리고 후(侯)로 봉(封)하여 주지 않은 것

www.artnstudy.com

은 진(秦) 나라가 주(周) 나라를 멸망시키고부터이다. 이리하여 진 나라의 후손도 후(侯)에 봉해지지 못한 채 끊겨버렸고, 한(漢)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제후로 봉해지지 않은 채 끊겨버리는 것을 보고는 모두들 “천자를 치는 자는 불인(不仁)한 자다” 하는데, 이것이 어찌 실정(實情)이겠는가. 올바른 이야기겠는가. 그리고 이제 비유를 보죠. 뜰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64인인데, 이게 춤 列이예요. 8*8=64해서 64명이 춤추는 건데, 천자의 이야기입니다. 천자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생략하고요. 64명인데, 이 가운데서 1인을 선발하여, 한 명을 선발해서 우보(羽葆)를 잡고. 이건 새의 깃털로 장식한 춤출 때 쓰는 도구입니다. 우보를 잡고 맨 앞에 서서 춤추는 사람들을 지휘하게 한다. 우보를 잡고 지휘하는 자의 지휘가 절주(節奏)에 잘 맞으면, 절주는 연주하는 가락입니다. 박자죠. 박자에 잘 맞으면 모두들 존대하여 '우리 무사(舞師)님, 우리 춤 선생님' 이렇게 하지만 지휘가 절주에 잘 맞지 않으면 모두들 그를 꿀어내려 다시 전의 반열(班列)로 복귀시키고 유능한 지휘자를 재선(再選)하여, ‘우리 무사님’하고 존대한다. 끌어내린 것도 대중(大衆)이고, 올려놓고 존대한 것도 대중이다. 다산의 생각입니다. 다산의 민권론(民權論)이죠, 이게. 이른바 백성들의 권리인데 이게 그러면 고대 사회에 정말 실현이 됐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산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역사적으로 그게 있었다고 믿기에는 곤란하고요. 예, 질문하세요. 일부가 유사한 측면이 있는거죠. 일부가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역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과 다산의 이걸 곧장 연결시키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유사한 점이 있죠, 유사한 점.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놀랍기도 하구요. 놀랍기도 한데 다산의 한계점은 없느냐, 이런 것만 뽑아놓고 보니까 그런데, 다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근대 정치, 근대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갖고 보면 다산의 한계도 보이는데, 지금 주제는 그건 아니니까요. 일단 봅시다. 어쨌든 대중이다. 그리고 대저 올려놓고 존대하다가 다른 사람을 올려 교체시켰다고 교체시킨 사람을 탓한다면 이것이 어찌 도리에 맞는 일이겠는가. 한(漢)나라 이후로는 천자가 제후를 세웠고 제후가 현장을 세웠고, 현장 - 가장 규모가 큰 고을이예요. 현장을 세웠고, 현장이 이장을 세웠기 때문에 그 상고 시대에는 전부 백성들이 추대해서 세웠고 한나라 때부터는 군주가, 천자가 제후를 세웠고 제후가 현장을 세우고 이런식으로 했다고 보는 겁니다. 한나라 이후의 상황은 맞죠. 그니까 상고 시대의 기록이 충분치 않으니까 그런 것을 끌어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공자나 맹자가 인용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절대권력이 백성들의 삶을 하나하나 통제하는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실제로 그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자연상태에서 권력으로 백성들을 하나하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처럼 그야말로 피 흘리면서 얻어낸 대혁명의 소산물과 똑같이 비교하는게 조금 무리인 거예요. 이제 자칫하면 학술적으로 오버하게 되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요. 한나라 이후는 그렇게 되었다. 그니까 이장이 인장을 세웠기 감히 공손하지 않은 짓을 하면 역(逆)이라고 명명했다. 순이 아니고 (逆)이다. 반역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른바 역이란 무엇인가. 옛날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추대하였으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추대한 것은 순(順)이고, 지금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추대했으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세운 것은 역이다. 그 반대이다. 그러므로 왕망(王莽), 조조(曹操), 사마의(司馬懿), 유유(劉裕), 소연(蕭衍). 유유는 남북조 시대의, 남조 송나라, 남조 송나라의 임금, 태조던가 아무튼 그래요. 남조 송나라의 첫 번째 임금이고. 그리고 소연도 남조 중의 양나라.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그리고 오나라 뭐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제 남조 양나라의 임금입니다, 소연은. 유유, 소

www.artnstudy.com

연 등은 역(逆)이고 무왕(武王), 탕왕(湯王), 황제(黃帝) 등은 현명한 왕이요, 성스러운 황제(皇帝)이다. 왕망이나 조조나 사마의, 유유나 소연 등은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건 뭐 왕망은 역시 찬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조조는 황제가 되진 않았지만 자기 아들이 황제가 되었고요. 사마의는 그냥 조조의 위나라를 그냥 진나라로 슬쩍 접수해 버렸죠, 그냥. 유유도 뭐 일종의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소윤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쨌든 이제 아랫사람들이 추대를 해서 윗사람을 세운 것이 순(順)이고, 그리고 올려놨는데 제대로 못하면 원위치시키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는게 순(順)이라고 보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마지막 부분 보죠.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걸핏하면 탕왕과 무왕을 깎아내려서 요순보다 못하게 만들려 한다면 어찌 이른 고금(古今)의 개변(改變)된 내용을 아는 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장자(莊子)는 이런 말을 했다. “여름 한 철만 살고 가는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봄과 가을이 있단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蟪蛄不知春秋(혜고부지춘추)인데 번역이 조금 그렇네요.

◆ 2교시 가장 중요한 건 백성이다

▲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민족문화추진회에 번역을 따와서 이렇게 한 건데요, 사실 인용을 할 때는 누구누구의 번역을 가지고 인용을 했는지 그것까지 밝혀야 됩니다. 밝히지 않으면 곤란하죠, 좀.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도 해야 하구요. 애써서 번역해 놓은 것을 가지고 논문 쓸 때 놓고 쓰면서 밝히지 않는 것, 그건 곤란하죠. 그리고 번역이란 게 얼마나, 저보고 어떤 텍스트 주면서 번역해라 하면, 지금 당장 해라 그러면 사양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논문이나 그런 걸 쓸 때는 좀 반짝하는 순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반짝하고 쓰는 건 단순할 때도 쓸 수 있고 그런데. 번역은 그런거 없습니다. 일년 내내 죽어라고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번역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번역은 좀 그래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있죠. 이게 蟪蛄(혜고), 뭐 둘 다 매미 종류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쓰르라미, 신식매미 이러는데, 한 철 사는 매미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 철 사는 매미는 不知春秋다. 여기는 이제 봄과 가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이 춘추는 일년이여요. 우리가 뭐,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하는 것을 "봄, 가을이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뜻으로 보는게 아니죠. 나이. 春夏秋冬의 춘과 추를 빼서 춘추라고 하는 거지 춘과 추만을 춘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春秋란 역사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춘추란 역사서도 1년의 일을 기록해서 춘추라 한 겁니다. 1년의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춘추라고 한거지, 봄과 가을의 일만을 기록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리고 이를 테, 千秋之恨이다 이럴 때는, 천추의 한이다 이러죠? 秋자 하나만 가지고 일년이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천년을 가도 잊을 수 없는 한이다, 이런 뜻이지 가을만 갖고, 가을만 되면 생각나는 그런거 아니예요. 한스러우니까 秋자를 넣어서 쓰는 겁니다. 그니까 매미는, 한 철 사는 매미는 일년의 길이를 알지 못한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되겠죠. 봄, 가을이라고 하면 좀 생뚱맞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큰 그거는 아니구요. 탕왕론이라고 하는 것, 탕임금이나 무왕의 혁명을 정당시하는 맹자의

www.artnstudy.com

혁명론을 자꾸 비판하는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좁은 소견이라는게 다산의 주장이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다산에게 혁명의 군주는 누구였을까. 혁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군주, 뭐 그건 이제 다산에게는 정조였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구요.

그다음 그럼 3번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한번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추나라가 노나라와 전쟁을 치렀다. 추나라 목공이 이렇게 말했다. 맹자에게 얘기한 겁니다. 나의 신하로 관직에 있는 자들은 33명이나 죽었는데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장교들만 죽고 병사들은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하죠. 죽이고 싶죠. 백성들을 죽이자니 이루 다 죽일 수 없고, 수가 많아서 죽일 수도 없고. 그리고 다 죽이면 혼자서 임금할 겁니까? 그냥 두자니 윗사람이 죽는 것을 통쾌시하여 구하지 않은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리던 시절에 임금님이 백성들 중에서 늙고 약한 이들은 굶어 죽어 그 시체가 도랑이나 구덩이에 뒹굴고 장성한 이들은 흩어져서 사방으로 간 자가 (오자가 있네요) 간 자가 몇 천 명이었는데 임금님의 재물창고와 곡식창고는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라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백성들은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담당 관리들이 그 사실을 임금님께 알리지 않았으니, 이것은 윗사람이 자신의 일을 태만히 하여 아랫사람을 해친 것입니다. 증자께서 이르기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出乎爾者 反乎爾者也. 너에게서 出, 나온 것은 너에게로 反, 돌아간다. 보복의 논리죠.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러 보복하게 된 것이니. 된 것이니, 그것도 빠졌네요. 왜 이렇게 됐죠? 보복하게 된 것이니 임금께서는 그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거기서 저항할 수 있는, 저항이라기 보다는 소극적 저항이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임금님께서 만약 인정을 베푸신다면 백성들이 윗사람을 친애하여 군장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인정을 베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됐다. 맹자에는 '민'이 있고 '맹'이 있는데요, 잠깐 4페이지로 넘어가서 '천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정치', 그 부분을 한 번 보죠. 거기를 보면, 孟子曰, 天下之士 ……, 市에 廛而不征 ……, '氓'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氓이라고 하는 건 본래는 유맹(流氓)입니다. 民은 居民이고, 그 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백성입니다.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거죠. 정착해서 살지 누가 자꾸 돌아다니면서 살고 싶겠어요. 배낭여행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갖고 사는게 가능하다면 누가 떠돌아 다니겠어요. 거기에 경작지를 주고, 경작해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면 거민이 되는 겁니다. 거주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면 氓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유민이라고 그러는데, 유민이 아니라 流氓이라고 그래야 사실 정확한 명칭이예요. 맹은 뭐냐 그 거주지를 亡, 잃어버리고 떠도는 백성들이예요.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백성들. 왜냐면 한 곳에서 정착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경작할 토지도 없고. 경작할 토지를 다 빼앗긴 거죠. 그런 삶의 조건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데, 데리고 전쟁에 나가면 되겠어요? 노비들은 전쟁에 나갈 의무가 없죠. 전쟁이 나도 노예들은 전쟁에 나갈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온 게 노예고, 당연히 그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만약에 居民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처지에 내몰렸다면 데리고 전쟁에 나가봤자 必敗죠. 반드시 지는거죠, 반드시. 지킬 가치가 없으니까요. 뭐가 있어야 지킬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정권의 부도덕성이나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전쟁

www.artnstudy.com

하나마나겠죠. 그런 상황을 추나라 목공이 당했던 겁니다. 당하니까 맹자가 간단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와서 백성들이 보복할 수 있게 된거다. 지킬 가치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그게 仁政이죠. 인정이 되어야 백성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게 3-1에 보면 국가와 백성인데요, 공자의 경우와 한비자의 경우. 공자의 경우와 맹자의 경우는 같습니다. 공자 같은 경우에는 사마천 사기에 보면 저런 내용이 있어요. 공자가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갔는데, 노나라 백성이예요. 노나라의 백성인데 전쟁에 나갔단 말이예요. 전쟁에 나갔는데, 도망쳤어요. 전쟁에서. 그래서 공자가 사구할 때입니다, 사구(司寇). 사구라고 하는 게 도둑을 司, 담당한다. 범법자를 처벌하는 그런 직책이죠. 사구 벼슬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백성이 붙잡혀 왔습니다. 전쟁에서 도망친거죠. 도망친 이유를 물으니 그 백성이 하는 얘기가 저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신데 제가 전쟁에서 죽으면 봉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공자가 놔줍니다. 처벌하지 않고요. 한비자가 그걸 가지고 격렬하게 공자를 비판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공자 입장에서 보면, 한비자는 국가라고 하는 게 유지되어야 백성들도 삶을 보존할 수 있다, 이 논리에 서 있습니다. 한비자 입장에서 그런게 또. 한비자라는 원래 이름이 한비인데 거기다가 '선생'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한비자가 됐죠. 본래는 한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유라는 대문장가가 나와서 한자라고 하면 헷갈려서 나중에 한비자로, 격하된 셈인데. 어쨌든 한비는 춘추전국 시대 그 수많은 지식인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귀족입니다. 한나라 공족이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를 지켜야할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 점에선 약간 실망스럽기도 한데 어떤 사람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의 신상명세를 꼼꼼히 살펴봐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걸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대단히 훌륭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약소국이고, 그런 약소국을 지탱하기 위해서 국가주의를 주장하는 겁니다. 한비자에게는 일리가 있겠지만 공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인정할 수 없죠. 예를 들어 공자 입장에서 그거죠. 어떤 백성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면 자기 어버이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 놓여있다면 그 사람을 전쟁에 내보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전쟁에 나가서 그 사회를 막아야 된다면 부당한 거예요. 공자의 논리입니다. 뭐 이를테면 미국같은 경우야 여러 나라에서 용병을 사가지고 전쟁에 내보내기도 하고, 미국 시민권을 줄 테니까 전쟁에 참여하란 얘기는 사서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다를 바가 없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의 주제는 아니니까. 그런 식의 입장이 공자이고 한비자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유지되어야 백성이 살 수 있으니까 국가가 최고의 가치가 된다.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거고요. 공자와 맹자가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 군주는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가장 가볍다

3-1에 보면 맹자의 경우가 나와 있잖아요. 맹자의 경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대목만 보겠습니다. 맹자를 볼 때 저런 견해가 있어요. 맹자의 왕도나 혁명이라고 하는게 허구다. 다 이게 속셈은 딴 데 있다. 실제 왕도가 아니고 실제 혁명도 아니다. 맹자의 왕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착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골몰한 거고. 백성들이, 민생이 파괴가 되어버리면 착취를 못하니까 착취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www.artnstudy.com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상당히 또 인기를 끌고. 혁명도 마찬가지 이다. 이게 악으로 악을 대체할 뿐이지 주왕이나 걸왕이나 이런 폭력적인 수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면 이거는 오래 못 간다. 좀 더 교묘하게 백성들을 통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 왕도이고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도 볼 수 있죠. 실제 맹자 속셈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맹자가 아닌데. 봐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내심이 있겠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할 자료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볼 때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맹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실제 맹자의 내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뭐. 실제 어떻게 알겠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 했는지, 아니면 하느님의 나라를 가고 싶어서 그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화되어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 그런 의심은 상당히 좀 무리죠. 맹자의 이야기가 이렇다. 백성들이 위기,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여요. 누구한테? 임금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社稷次之, 사직이 그 다음이고 君爲輕이다. 군주는 나라를 구성하는 요건 중에서 가장 가벼운 존재다, 이런 거예요. 백성과 사직과 군주. 통치자가 있고 또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고, 그 다음이 영토이고 그 다음이 통치자이다. 그니까 君爲輕, 이게 최상급이거든요. 백성들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군주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가벼운 존재이고, 社稷이 그 다음이다. 사직이 백성 다음으로 중요하다. 왜? 사는 토지거든요. '토지의 신'이고 여기 직은 '곡물의 신'입니다. 여기에 기도를 해가지고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땅신하고, 곡물신에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농사가 풍년이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걸 갈아 엎어버립니다. 새로 다 만들어요. 다시 새로 만듭니다. 왜? 이건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했잖아요. 정치에서 이거 절대 가치란 말이여요. 맹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뭘. 우리가 이 백성들의 선택이 옳다고 누가 장담하겠어요.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하지만 정치에서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죠. 백성들의 선택이라고, 이 정치에서,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선택에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잘못 갔다 하더라도 그걸 잘못이라고 보는 쪽은 오만방자한 거죠. 가는 거란 말이여요.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일단은 현대 정치의 국민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두고 民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게 '民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구요. 민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선출 권한이라든지, 이게 백성들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건 없거든요. 다만 소극적 저항권은 있다. 전쟁에 나갔을 때. 같이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무리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백성이 가장 존귀하다. 그 내용만은 충분히 드러나 있는 것이 맹자의 혁명론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천하 백성들이 몰려오는 정치는 한 글자 인용하기 위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건 또 다른 기회에 말씀 드리기로 하구요. 存養과 善養. 이건 묵자의 경우, 노자의 경우, 맹자의 경우가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시간에 같이 엮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ww.artnstudy.com